

# 민주 중도강화-좌향좌 노선 갈등

## 김효석·강봉균의원 등 20명 '중도'모임 결성 정동영·천정배 최고위원 '좌클릭' 강력 주장

한나라당에서 신·구주류 간 노선 갈등이 일자 민주당 내에서도 이념 및 정체성 대립이 재연되고 있다.

한나라당의 중도층 잡식에 맞서 중도층을 더욱 두텁게 해야 한다는 온건파와 '좌향 좌'를 통해 선명성을 부각, 한나라당과 확실한 차별화에 나서야 한다는 강경파가 충돌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중도' 이미지가 강한 손학규 대표에 김진표 원내대표까지 선출된 상황에 대한 당내 반작용으로 풀이된다. 특히 6월 임시국회에서는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비준안 처리가 논의될 것으로 보여 정체성 논란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당내 대표적 온건파로 꼽히는 김효석·강봉균·김부겸·우제창 의원 등 20여명은 내달 중 '생활진보모임'(가칭)을 구성, 중도층을 꺼안할 수 있는 정책 노선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 모임은 무상복지 정책에 우려를 표명했던 이들이 주축을 이루고 있으며, 기존의 '민주정책포럼'을 확대, 재편한 것이다.

이에 대해 김효석 의원은 24일 "민주당이 왼쪽으로 갈수록 민주당 동당, 진보신당과 지지층이 겹쳐게 된다"며 "중원을 내주는 것은 대선 필패 구도"라고 말했다.

반면 정동영·천정배 최고위원 등은 '좌(左) 클릭'을 주장하고 있다.

정 최고위원은 한미 FTA 비준안과 관련, "한미 FTA 원안은 당의 보편적 복지국가의 비전과 충돌한다. 따라서 원안에 대한 충분한 토론과 의견수렴이 필요하다"며 원안 재검토까지 주문했다. 기존 당 방침에 "좌클릭"을 더 요구한 것으로 해석된다.

천 최고위원은 "민주당은 정체성을 분명히 정립하고 국가비전과 구체적 정책 제시를 해야 한다"며 "민주당이 확고한 개혁과 온건한 진보의 길을 가야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비주류의 행보에 대해 당 일각에서는 자신들의 정치적 존재를 알리기 위한 전략적 차원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당 관계자는 "현 지

도부가 중도로 구성된 만큼, 개혁성향의 비주류 진영이 자기 위치 찾기를 위한 전략적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당 관계자는 "노선갈등은 이제 시작이 될 것이며, 큰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이와 관련 이날 손학규 대표는 진보·보수라는 이분법적 이념 논쟁의 무의미함을 지적하며 당내 이념 갈등을 경계했다. 손 대표는 KBS1 라디오 정담대표 연설에서 "새로운 정치의 방향은 좌회전도, 우회전도 아니고, 오직 국민을 위해 전진하는 것"이라며 "어떤 이념논쟁보다 바로 민생을 나침반으로 삼아 앞으로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손 대표의 발언은 향후 정국의 흐름 속에 찾아질 민주당 비주류 측의 이념적 굴레에 갇힌 주장에 대해 일정부분 선을 긋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거짓 해명 마세요” 민주당 이미경의원이 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유영숙 환경부 장관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 “소망교회 거액 현금 ‘장관 로비용’이었나”

국회, 유영숙 환경장관 인사청문회 자질·도덕성 추궁

5·6 개각에 따른 국회 인사청문회 이틀째인 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유영숙 환경부 장관 내정자를 상대로 도덕성과 전문성 등을 집중 점검했다.

민주당은 소망교회 고액 현금 및 배우자의 특혜성 급여 등을 강도 높게 추궁했고 한나라당은 유 후보자의 환경 분야 전문성을 도마에 올렸다.

야당은 유 내정자가 이명박 대통령이 장로인 소망교회에 지난 2007년부터 9600여만원의 현금을 낸 배경에 대해 의혹을 제기했다.

민주당 이미경 의원은 “유 내정자는 장관 발탁 배경이 소망교회 신자였기 때문이라는 의혹에 대해, ‘소망교회는 2008년 5월부터 다녔다’며 부인했으나, 2007년 7월부터 이 교회에 현금을 했다”고 지적했다.

즉, 고액 현금을 정권 실세가 다니는 교회에 장기간 냈다는 것은 ‘장관 로비용’ ‘입각 기여금’으로 밖에 볼 수 없다는 것이 의원 측 주장이다.

이에 대해 유 내정자는 “평생 교회 헌금이나 기부금을 특이하게 바라고 내본 적이 결코 없다”고 부인했다.

또 민주당 홍영표 의원은 유 내정자의 배우자가 SK건설로부터 2년7개월간 받은 12억여원의 급여를 문제 삼았다.

홍 의원은 “유 내정자의 남편이 부산시 정무부시장으로 근무할 때 SK건설이 주도했던 ‘센텀시티’ 건설을 계기로 받은 특혜성 급여가 아닌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손병규 의원은 “환경에 대한 전문적 식견도 다소 부족해 보인다”며 전문성 부문을 지적했다. 민주당 동당 홍영표 의원은 유 내정자의 논문표절 의혹을 제기했으나 유 후보자 측은 전면 부인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김효석의원 대권 출마?

### “이제 과감한 정치적 도전에 나서라” 동료 권유 “지역민과 소통 통해 도전여부 최종 결정하겠다”



민주당 김효석 의원(담양·구례·곡성)이 민생을 기반으로 하는 ‘능력 있는 진보’를 화두로 내년 대권 도전을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어 관심을 모은다.

25일 김효석 의원은 “최근 민주당 중도 성향의 의원들과 함께 ‘생활 진보’라는 모임을 꾸릴 계획”이라며 “20~30여명의 의원들이 이 모임에 참여할 것이며 당내 현안에 대해 적극적인 문제 제기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야권연대 및 통합 등을 통해 진보 진영을 꺼안아야 하지만 이와 동시에 중도 성향의 민심을 확실하게 붙잡아야 한다”며 “유동성이 높은 중도 성향 민심의 향배가 결국 총선과 대선 승리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중도 성향의 민심을 잡기 위해서는 민주당이 집권해도 안정적이며 생산적으로 국정을 펼칠 수 있다는 평가를 받아야 한

다”며 “이를 위해, 민주당은 민생을 기반으로 보다 현실적인 정책 제시를 통한 ‘능력 있는 진보’의 길을 개척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민주당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는 ‘대권 도전’ 가능성에 대해 “이제 과감한 정치적 도전에 나서 시기가 됐다”는 동료 의원 등의 권유가 있는 것이 사실이며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며 “우선 3선 의원으로 성장시켜준 지역민과의 소통을 통해 대권 도전 여부를 최종 결정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의 대표적 정책통이자 합리주의자로 평가받는 김 의원의 대권 도전에 나서게 된다면 중도성향 의원들과 당원들의 지지를 이끌어 내면서 당내 경선구도에 상당한 변화를 몰고 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이와 함께, 김대중 전 대통령 이후, 대권 도전에 있어 지역적, 인구적 한계 등을 매개로 ‘호남불가론’이 확산되고 있다는 점에서 김 의원의 도전이 현실화된다면 지역 정치권에도 커다란 반향을 일으킬 전망이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 서규용 농림장관 내정자 국회 청문보고서 채택 유보

서규용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내정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 결과보고서 채택이 유보됐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를 열어 서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 결과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이었으나 여야간 이견으로 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하고 산회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 소속 최인기 농식품위원장은 “농식품위는 모든 의안에 대해 합의처리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 만큼 양당 간사와 의원 간 조율을 통해 인사청문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기로 하고 오늘은 채택을 유보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농식품위원들은 회의 직후 기자회견을 통해 “차관 출신인데도 업무 파악이 되지 않고 정책 비전도 없을 뿐 아니라 ‘가짜농민’ 노릇을 하며 직불금을 수령했고 세금을 탈루한 것에 대해 구차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자신사퇴를 촉구했다.

반면, 한나라당 간사인 강석호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다소 미흡한 점은 있지만 장관직을 수행하지 못할 정도의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고 주장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25일까지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이후 10일 이내에 별도 조치 없이 임명절차를 밟을 수 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與 정체성 논란 가열... 6대 이슈 조짐

친서민정책 놓고 신·구주류 ‘票플리짐’ 갈등

친서민 정책기조를 둘러싼 여러 내신·구주류 간 노선 갈등이 정체성 논란으로 확산하면서 정당내외 최대 이슈로 부상할 조짐이다.

신주류 측의 황우여 원내대표는 24일 오후 한국교총을 방문한 자리에서 “필요시 대통령에게 결단을 내리려 할 것을 건의하고 촉구도 할 것”이라며 등록금 완화 정책 의지를 강하게 피력했다. 그는 “18대 국회를 마감하는 올해 대학 등록금 완화 문제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 내년 예산부터 가시적인 성과를 내 젊은이에게 희망을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내 지도부는 이와 함께 ‘반값 등록금’이란 용어가 포퓰리즘 논란을 야기했다는 판단에 따라 앞으로 ‘등록금 부담 완화’란 표현을 쓰기로 했다.

이에 반해 정의화 비대위원장은 라디오 방송에 출연, “반값 등록금은 중요한 정책 중 하나이지만 선거를 의식한 인기영합으로 볼 수도 있다”면서 “이 문제는 당정청간 충분한 협의와 원내 컨센서스가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친이계 초·재선 소장파들도 오전 의원회관에서 2차 모임을 갖고 새 원내 논쟁은 필요한 것”이라며 “이번 전당대회에서는 사람·조직이 아닌 정책·비전 대결의 장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우 의원은 “모든 목표가 선거에만 몰입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면서 “정책위 설명을 들어보면 소득 분위 50% 이하 학생에게 장학금을 제공하는 형태라는데 반값 등록금 용어도 잘못됐다”고 말했다.

나성린 의원은 “등록금 부담 완화를 얘기하면서 대학구조조정을 언급하지 않은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당내에서는 비록 갈등이 있지만 생산적 논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기대감도 나타나고 있다.

해신파인 남경필 의원은 이날 “한나라당의 정책노선 방향에 대한 가치 논쟁은 필요한 것”이라며 “이번 전당대회에서는 사람·조직이 아닌 정책·비전 대결의 장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1960년 4.19 의거 때 한국일보 지방판에 실린 기사를 찾습니다.**

1960년 4월 20일~4월 26일 사이에 한국일보 광주·전남 지방판에 다음과 같은 기사가 실렸습니다.

김주열 열사의 시체가 발견되자 전국에서 정부에 대한 열거로 국토가 들끓었습니다.

그 때 광주에서도 시내 고등학교 학생들이 전남도청으로 집결하여 데모를 했습니다.

마침내 전남도청 간부와 각 고등학교 대표들 간의 면담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유엔하원총동문회장을 역임한 박석남 회장이 당시 광주상고 대표로 도청간부와 면담했습니다.

한국일보 기자가 박석남회장에 면담내용을 인터뷰한 후 신문에 실었습니다.

4.19 의거때 박석남회장의 이름이 들어간 기사를 가지고 계신 분이 연락 주시면 후사하겠습니다.

연락처 : (주간) 02-2244-4447  
(야간) 010-4612-3567

**부실채권 (못받은돈) 회수대행전문**

대여금·거래대금·개인차용금·공중·판결문·각종못받은돈

선수금없음, 후불제(착수금) (법비용은 채권자 부담)

수수료(회수 금액의 30%이내), 재산조사, 신용조사가능

◎텔레마케터 수시모집(여) (아르바이트·시간제가능·연령무관)

◎추심직, 계약상담직원 (광주·전남·전북 센터장 모집)

★ 소중한 재산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

**새한신용정보(주)**  
062)232-7770, 010-4608-6061  
(담당 : 김형수)

<p><b>금산공인중개사</b></p> <p>상무신도심 상·업·용·지 (C1지역) 매매</p> <p>■ 위치 - 상무병원, 롯데마트 건너편, 삼성화재빌딩옆 (4년 광로변)</p> <p>■ 대지면적 - 약 2,850㎡ (180평 분할가능)</p> <p>■ 3.3㎡당 매매가 - 1,300만원</p> <p>■ 공동 복합 APT 주택가능 (최근 도시계획 변경)</p> <p>※ 종합병원/상가/오피스 유희가능</p> <p><b>장점</b></p> <p>① 주상복합(공동 APT) 가능 ② 광로변 최고 광고 효과 ③ 롯데마트, 상무병원 건너 삼성화재 옆 최고의 상권 ④ 최고의 교통 접근성 (광주시청 접근성과 광·송간 5·18 광로변) ⑤ 상무신도심 중심 상업 빌딩지구</p> <p>※ 10층 신축건물 옆 코너</p> <p>H.P.011-601-5354</p>	<p><b>대인동상일부동산</b></p> <p>좋은 자리에 상가 건물을 싸게 사실분</p> <p>상가 전문소개업체인 저희 부동산으로 오십시오.</p> <p>광주시내 전지역 상가중 점포가 잘 형성되어 월세가 다 른지역보다 더 많이 나오고 앞으로 더욱 좋아질 비전있는 곳으로 1층 점포가 4~5칸 정도에 점포가 여러칸인 상가를 대표적인것만 골라 물건을 많이 확보하고 있어 일일이 광고하지 못합니다.</p> <p>사장님께서 중요한 결정을 내리실 때에는 상가전문 소개업체인광주에서 오랜전통 있는 저희 부동산에 꼭 한번 방문 하시던 책임지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p> <p>(FAX)223-1772, 011-602-2532 (광주은행 신촌점 옆, 대인동 소방서 건너편)</p>	<p><b>주인직접거래</b></p> <p>고흥바닷가 신축항동집</p> <p>큰면적3개 넓은 텃밭 300평</p> <p>조망권최고 계곡물흐름</p> <p>전세 5천만 3천만원</p> <p><b>해수절임공장 임대</b></p> <p>맑은바닷물 (김치공장도최적)</p> <p>고흥바닷가 약100평</p> <p>전세 1천만원</p> <p>고흥-광주간 고속도로 공</p> <p>사중 약50분거리임</p> <p><b>고흥 대전리 해수욕장 옆</b></p> <p>매실, 유자밭 3천평</p> <p>당5만원 (펜션,모텔 부지 최적)</p> <p><b>항토주택 짓는법</b></p> <p>무료로 배우실 분</p> <p>문의 ☎ 010-8200-5662</p>	<p><b>신진공인중개사 (임대전문)</b></p> <p><b>서구 매월동 준공업지역매매</b></p> <p>▶대지 : 263평, 신축총453평, 사무실 26평</p> <p>건폐율 60% 유통단지</p> <p>▶매매가격 : 6억2천만원</p> <p><b>고흥군 금산면 토지매매</b></p> <p>▶계획관리지역·면적-14,000평, 8,500평 (10도 경사, 2차선 도로접)</p> <p>▶매매가격 : 협의후 결정</p> <p><b>남구 송하동 토지매매</b></p> <p>▶대 지 : 1500평(6차선 도로접)(700평)</p> <p>▶자연녹지 : 700평 ▶일반공업지역 : 800평</p> <p>▶매매가격 : 협의후 결정</p> <p><b>북구 동림동 공장(창고)급매</b></p> <p>▶대 지 : 538평, 680평, 1000평</p> <p>▶건 물 : 300평, 200평, 200평</p> <p>▶높 이 : 8.9, 10.9m</p> <p>▶호이스트 : 유, 유, 유</p> <p>▶매매가격 : 협의후결정</p> <p>문의 ☎ 016-644-4265, FAX.523-8558</p>
--	--	--	---